

[교과서]

**감상** 미술가 알아보기

\* 이중섭 작가와 작품을 떠올리며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봅시다.



이중섭 (한국, 1916 ~ 1956) | 서귀포의 환상 (나무판에 유채, 56 x 92cm, 1951년 작)

- 들것에 열매를 가득 담아 옮기는 아이
- 열매를 함지박에 담은 아이
- 땅에 드러누운 아이
- 열매를 따는 아이
- 를 타는 아이

작품에서 무엇을 타고 있는지 써 보아요.

**1 미술가**

미술가는 자신이 느낀 것, 경험한 것, 생각한 것, 상상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사람이다. 미술가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 방법, 기준에 따라 표현할지 고려하는데, 전통적 미술 표현 방법을 따르기도 하고 새롭게 표현하기도 한다.

**2 미술 작품**

미술 작품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우며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미술 작품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는 것은 미학이라는 예술 철학과 관련되는데, 크게 모방론, 표현주의, 형식주의, 맥락주의로 볼 수 있다. **모방론**은 미술 작품이란 외부 세계를 닮게 그리는 것이라는 이론이고, **표현주의**는 미술 작품이란 감정의 표현이라는 관점이다. 한편 **형식주의**는 미술 작품이란 의미 있는 형식으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적절하게 구성한 것이라는 관점이다. **맥락주의**는 미술 작품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사회, 문화적 맥락과 같이 미술 작품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관점이다.

[교과서]

**감상** 작품 소개하는 편지 쓰기

\* 작품을 감상하고 새로운 제목을 붙여 봅시다.



안녕! 나는 반 고흐예요. 갑자기 내 그림들의 제목이 모두 사라졌군요. 그림에 새 제목을 빈칸에 써 보아요.



**3 미술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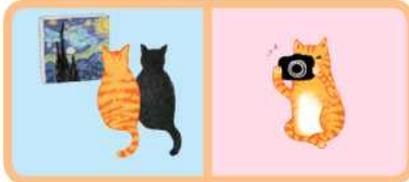
미술 감상을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 펠드먼(미국, 1924 ~ )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술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작품을 관찰하고 작품의 형태, 색채, 공간 등의 조형 요소에 관해 기술하도록 한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기술에서 나아가 형태의 관계, 위치와 형태, 크기의 관계, 형태의 상호 관계, 색채와 재질감, 재질감과 평면의 관계, 공간과 양의 관계를 분석한다. 세 번째, 해석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특징을 토대로 작품의 의미를 찾는다.

네 번째, 판단에서는 미술 이론에 근거하여 미술 작품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도할 수 있다.

단계	활동
마음 열기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대로를 언어로 묘사하기</li> <li>• 직관적인 관찰을 우선하여 작품의 첫인상 기술하기</li> </ul>
자세히 보기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 기법과 재료, 용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li> <li>• 조형 요소나 원리 탐색하기 (선, 형, 색, 면, 질감, 양감, 대비, 구도, 재료의 사용, 표현 양식 등)</li> </ul>
작가의 마음 읽기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느낌을 기술, 작가의 표현 의도를 파악하고 발견하기</li> <li>• 작품의 제작 의도와 동기 탐색하기</li> <li>• 작품의 주제나 의미를 찾아 해석하기</li> </ul>
생각하고 판단하기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된 점이나 아쉬운 점을 찾아보고, 종합적인 자기 평가하기</li> <li>• 자신의 느낌이나 감동을 여러 가지 표현 도구로 나타내기(시, 몸동작, 음악 등)</li> </ul>

[교과서]

미술관·박물관 관람 예절



관람하는 사람 앞으로 지나가지 않아요.

사진 촬영은 허용된 곳에서만 해요.



질서 있게 감상해요.

작품은 눈으로만 감상해요.

미술관·박물관의 체험 장소와 사이버 미술관



**체험관**  
작품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체험할 수 있어요.



**사진 촬영 장소**  
사진을 찍어 전시장 방문을 기념할 수 있어요.

1 미술관과 박물관에서의 올바른 감상 태도 익히기

-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작품을 감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한다.
- 작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에 집중한다.
- 작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작품을 감상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아보도록 한다.
- 다른 사람이 작품을 감상할 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작품을 훼손하거나 전시장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2 미술관·박물관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

큐레이터 (학예사)	소장품을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새로운 작품을 수집하거나 작품의 진위를 파악하고 해석하며, 연구 자료를 발간하고, 전시의 기획을 담당한다.
도슨트	지식을 갖춘 안내인을 뜻하며, 전시의 기획 의도와 작품 등을 관람자에게 설명해 준다.

[교과서]

감상 우리나라 미술과 다른 나라의 미술 비교 감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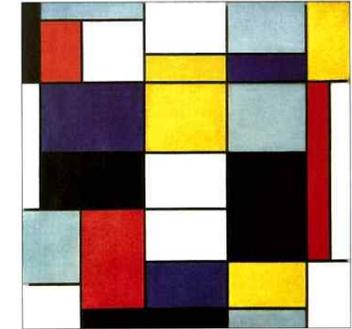
- ✓ 우리나라 전통 미술과 다른 나라의 미술을 비교 감상해 봅시다.

조각보에서 보이는 추상



조각보(빛면, 명주, 56×58cm, 조선 시대)

6  
부록 75쪽



몬드리안(Mondrian, Piet Cornelis/네덜란드, 1872~1944) | 검정·빨강·회색·노랑·파랑의 큰 구성 A(캔버스에 유채, 91.5×92cm, 1919~1920년 작)

【발문】

- <조각보>는 언제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든 것인가요?
- 여러 <조각보>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거나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 제작 시기가 서로 다른 <조각보>와 몬드리안의 작품은 어떤 점이 달랐나요?
- 전통 공예품인 <조각보>와 몬드리안의 추상 미술의 차이점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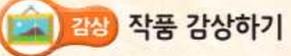
3 미술 작품 감상 방법의 종류

- **단독 감상법** - 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감상하는 방법
- **인상주의 감상법** - 작품을 보는 감상자의 첫 인상이나 직관적인 느낌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
- **분석적 감상법** - 작품에 사용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분석하고,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
- **의도주의 감상법** - 작품을 제작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며 감상하는 방법
- **맥락적 감상법** - 작품의 시대적, 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
- **비교 감상법** - 두 개 이상의 작품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감상하는 방법

4 미술 감상의 다양한 접근 방법

- **인상주의적 접근**: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의 기분이나 인상, 직감적 느낌 등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 **표현주의적 접근**: 작품을 통해 작가가 표현하려고 한 감정을 중심으로 감상한다.
- **분석적 접근**: 작품에 사용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분석하고,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감상한다.
- **주제적 접근**: 작품에 담겨 있는 작가의 의도나 주제를 중심으로 감상한다.

[교과서]



작품의 특징을 찾아보고 감상해 봅시다.

**감상관점**

1.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무엇인가요?
2. 작품의 소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요?



단원 김홍도가 이르신게 드릴 선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주석 "오주석의 한국의 아름다움"

김홍도(조선, 1745~1806?) | 황요공첩도 (종이에 채색, 30.1x46.1cm, 조선 시대)

① 민화

민화는 일반 백성이 생활 공간을 장식하기 위해 그린 **실용화**를 말한다. 본래의 형태보다 더 생략하거나 과장해서 다양한 색을 사용한 민화는 대부분 정식으로 그림 교육을 받지 못한 **무명 화가**들이 그렸으며, 좋은 일을 바라는 마음과 함께 나쁜 일을 막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② 전통 회화의 구분

재료와 기법의 차이에 따라 수묵화, 수묵 담채화, 채색화 등으로 구분한다.

- **수묵화**: 화선지에 채색을 하지 않고 **먹과 물을 재료로 하여 그 농담의 변화**에 따라 모든 대상의 형태와 색을 표현하는 그림이다.
- **수묵 담채화**: **먹색의 농담 효과를 위주로 하되 얇은 채색을 더한 그림**이다. 먹의 농담을 조절하여 표현한 후 채색을 하거나 채색을 먼저 한 다음 먹 선을 그리기도 한다.
- **채색화**: 먹색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주로 **채색을 짙게 사용하여 표현하는 그림**이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오래된 표현 방법이다.

③ 수묵 채색화의 표현 방법

- **물골법**: 윤곽선을 써서 형태를 선명하게 그리지 않고 바로 먹이나 채색만을 사용하여 농담으로 사물을 그리는 기법이다. 윤곽선이 없기 때문에 물골, 즉 뼈 없는 그림이라 부르는 것으로 주로 꽃 그림에 많이 사용되었다.
- **구름법**: '구름 전채법'의 준말로 형태의 윤곽을 먹선으로 먼저 그리고 그 안쪽을 채색하는 기법이다. 줄여서 '구름'이라고도 한다. 중국 당나라 시대 이후 윤곽선을 나타내지 않는 물골이 등장하자 이와 구분하기 위해 이전까지 사용했던 방법을 구름이라 부르게 되었다. 단번에 써 내는 것을 '구'라 하고, 겹쳐서 그리는 것을 '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정밀하고 세밀한 화조화에 사용된다.

형식



- ① **조형요소와 원리**
  - 선, 형, 색 등의 조형요소의 사용에서 특징은 무엇인가요?
  - 어떤 조형 원리와 특징을 찾을 수 있나요?
- ② **표현 재료와 방법**
  -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나요?
  -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나요?

내용



- ① **주제**
  - 무엇을 그렸나요?
  -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 ② **작가의 의도**
  -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 작가는 형태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 ③ **시대적·사회적 배경**
  - 작품에 담긴 시대적·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교과서]

① 여러 가지 감상 방법에 따른 '게르니카'감상의 예



- **단독 감상:** 이 작품은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작품이에요. 무채색만을 사용해 수묵화 느낌이 나기도 해요.
- **비교 감상:** '제주 생활의 중도'가 여러 가지 화려한 색을 사용하였고 형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반면 '게르니카'는 무채색만을 사용하였고, 형태도 일그러져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 **직관적 감상:** 쫓고 쫓기는 듯한 긴박한 상황을 표현한 것 같아요.
- **분석적 감상:** 등장인물을 살펴보니 아기를 안고 우는 어머니, 놀란 말들 등이 있으며 이 형태들이 조각조각 분해된 형태로 표현되었어요.
- **수용적 감상:** 1937년 에스파냐 게르니카 마을에서 독일 나치의 공습을 받아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장면을 그렸어요.
- **비판적 감상:** 처참한 광경이 사실적인 형태가 아니라 조각조각 분해된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 그 고통스러움이 더욱 강조되어 표현돼요.

② 감상관점에 따른 '제주 생활의 중도' 감상내용 예

- **표현 방법:** 여러 가지 혼합 재료를 사용해 표현하였고 형태가 단순하게 표현되었어요.
- **조형 요소와 원리:** 큰 나무가 화면 가득히 좌우 균형 있게 있어요. 파랑, 빨강, 하양이 주요색이며 노란색과도 어우러져 경쾌해요.
- **주제:** 자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평화로운 장면을 그렸어요. 제목을 보아 작가가 제주에서 행복했던 생활을 그린 것 같아요.
- **작가의 의도:** 작가는 인간과 동물, 식물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하자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한 것 같아요. 좀 더 분명하게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 **시대적·사회적 배경:** 이 작품의 시대적·사회적 배경은 자동차가 그려져 있으므로 오랜 옛날은 아니에요. 또한 도시가 아닌 자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교과서]

감상 작품 감상 방법 알아보기

✓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봅시다.



작가 중심으로 감상하기

- 작가와 시대를 분석해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며 감상할 수 있어요.
- 작품이 제작된 시대는 언제인가요?
- 시대적 배경은 작품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 작가가 이 작품을 제작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김환기(한국, 1913~1974) | 피난 열차(캔버스에 유채, 37×53cm, 1951년 작)

김환기 작가

감상자 중심으로 감상하기

- 스스로 생각하고 감상할 수 있어요.
- 작품을 본 첫인상은 어떤가요?
-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가요?
- 새로운 제목을 붙여 볼까요?
- 작품에서 마음에 드는 점과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시 체험 활동에 참여하기

- 미술관에서 여는 전시 체험 활동에 참여하여 작품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어요.



백남준(한국-미국, 1932~2006) | 다다익선 (부분, 텔레비전 브라운관, 7.5×7.5×18.5m, 1988년 작)

작품 해설자 중심으로 감상하기

- 작품에 관한 설명으로 감상을 도와줘요.
- 작품 정보를 제공하는 시청각 기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① 미술 비평 방법

비평 방법	핵심 내용
규칙에 의한 비평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나 표준을 가지되,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작품에 적절한 미적 기준에 따라 비평하는 방법
의도주의 비평	예술 작품을 창작할 때의 예술가의 심리적 의도와 미적 의도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비평하는 방법
맥락주의 비평	예술 작품이 생산된 역사적, 사회적, 심리적 배경을 중심으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비평 방법
내재적 비평	맥락주의 비평과 작품의 외적 요소들을 제외시키고 작품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비평가는 몰개성적으로 비평하는 방법
인상주의 비평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인상과 주관성을 강조하여 비평기준 없이 자신의 인상과 열정을 독자나 수용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

② 대화 중심 감상 교육

대화 중심 감상법은 먼저 작품을 자세히 살피고,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생각하고 난 후 정리하여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한다. 일반적 감상 방법에서는 전문가나 교사가 작품을 해설하고 학생과 관람자들이 조용히 경청하는 것을 감상 교육이라고 생각했다면, **대화 중심 감상법은 감상자들이 대화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서로 교류하는 데 특징이 있다.** 대화 중심 감상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 내고 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 (1) 작품을 자세히 보도록 권한다. 이때 교사는 작품을 먼저 설명하지 않는다.
- (2) 감상자가 자신이 본 것을 생각하고 '이것은 무엇일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여 자신이 본 대로 이야기할 수 있게 지도한다.
- (3) 감상자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를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와 같이 학생들이 (2)에서 생각의 까닭과 근거를 연결하여 스스로 작품의 뜻을 구성하도록 한다.

③ 미술 작품 감상 방법의 종류

수용적 감상	비평적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용적 감상은 주어진 정보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li> <li>'이 작품에서 무엇이 보이는가'와 같이 보이는 그대로를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어진 정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분석, 해석하여 판단</li> <li>'이 작품은 무엇 때문에 유명한가', '이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등과 같이 나름대로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작품에 접근</li> </ul>
직관적 감상	분석적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접적이고 감성적으로 대상을 접하면서 평가하고 감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품을 보는 관점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분석적으로 평가하고 감상</li> </ul>
단독 감상	비교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의 작품 또는 같은 요소나 특질을 가진 작품만을 제시하여 감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둘 이상의 대상에서 작품의 주제 내용이나 조형적 요소, 재료·용구, 작품의 양식 등의 비교 관점을 설정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며 상호 비교</li> </ul>

[교과서]

감상 작품 감상하기

✔ 탈의 특징을 살펴보고 감상해 봅시다.

감상관찰

1. 탈의 소재와 재료를 알아보았나요?
2.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탈인가요?



재규어 탈(멕시코) | (나무에 채색, 20×17×25cm)

▲ 멕시코에서는 재규어를 비의 신으로 섬겼어요. 비를 조절하기 위해 이 탈을 쓰고 춤을 추었어요.



영양 탈(코르디부아르) | (나무에 채색, 15×18.8×56.8cm)

▲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나무를 이용하여 사슴, 영양, 코끼리 등의 모양으로 탈을 만들었어요.



마하 콜라 산나 아카 탈(스리랑카) | (나무에 채색, 20×66×77cm)

▲ 스리랑카의 신할라족은 열여덟 가지 질병을 탈에 새겨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 탈과 내용이 맞는 붙임딱지를 붙여 보세요. <붙임딱지 85쪽>



부네 탈

• 초승달 같은 눈웃음과 얇은 미소를 띠고 있어요.



초랭이 탈

• 양반의 하인으로 까불거리는 성격을 표현했어요.



양반탈

• 고개를 찌르면 웃는 표정이 되고 숙이면 화난 표정으로 변해요.

① 다문화 미술 교육

다문화 미술 교육은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다문화적인 인식을 통해 다양한 미술 문화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와 감상, 조형 활동을 하는 일련의 교육 활동을 말한다. 이 다문화 미술 교육은 여러 나라의 미술품이 만들어진 그 시대의 문화, 사회, 역사적 배경을 알게 하고, 다원주의에 따라서 이제껏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미술뿐만 아니라 유색 인종, 소수 민족, 여성, 민중 등의 모든 계층의 미술과 민속 미술, 의상, 음식, 디자인, 건축, 환경, 영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문화와 미술 작품의 감상 활동, 다문화 특징을 표현하는 활동 등 모든 조형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다문화 미술 교육의 교육적 효과

1. 표현력 향상 및 다문화의 이해력 증진

어린이들은 다문화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형태의 새로운 주제와 문화를 새로운 표현 재료를 활용한 미술 활동으로 경험함으로써 더욱 자유롭고 개성적인 표현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지식의 자극을 받고 다양한 표현 기법을 익힘으로써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충실히 표현하게 되어 표현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환경과 기후, 교육, 전통문화, 의식주 등의 기본 생활을 표현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

2. 다인종에 관한 인간관계 및 상호 작용 확보

어린이를 위한 다문화 미술 교육은 각자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게 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도 없앨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일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은연중에 다른 나라 어린이들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함께 활동하는 다인종 어린이들과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확보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의사소통도 할 수 있게 된다.

3. 정체성 함양 및 다양성 존중

한 나라의 전통문화에는 그 민족의 민족성과 사고방식이 녹아 있으므로 그 민족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 온 독특한 삶의 방식까지 알게 된다. 어린이들에게 다문화 미술 교육이 주는 교육적 효과는 바로 문화의 정체성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표현해 봄으로써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게 되고, 한국 문화만이 가지는 독자적인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가운데, 세계 여러 문화에 관해서도 존중하고 그 특성을 인정하는 배려심도 키울 수 있다.



교수·학습 자료

비단과 캔버스의 차이 비교

<비단에 그린 작품>



정선(조선), <백하관도>  
(비단에 담채/조선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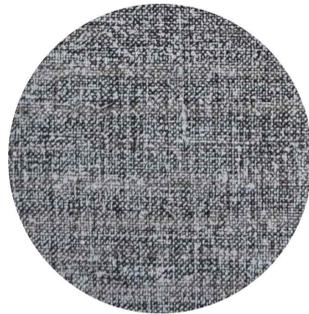
<캔버스에 그린 작품>



이해균(대한민국),  
<선형작위>  
(캔버스에 아크릴/2016)



비단은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로 만든 섬유로서 기원전 3000년대부터 사용되었다. **부드럽고 광택이 있어 아름다우며 먹의 농담이나 자유로운 붓놀림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이다. 먹물의 경우 섬유에 바로 스며들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다.** 따라서 한 번의 붓질로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였다.



캔버스는 직포나 마포 등을 활용하여 화물에 팽팽하게 치고 흰색의 도료를 발라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든 재료이다. **유화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그리며 물감이 캔버스에 붙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위에 덧칠할 수 있다. 덧칠이 가능하여 수정도 용이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단독 감상과 비교 감상의 차이점

단독 감상은 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같은 요소와 특징을 가진 작품을 감상하여 특정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감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에 비해 비교 감상 방법은 두 작품 이상을 감상 대상으로 삼고, 이를 위해 특정한 비교 관점을 설정하여 두 작품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작품의 특징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때 비교 관점에는 주제, 내용, 조형적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처리 방법, 재료와 용구의 사용 방법, 작품 양식, 제작 방법, 연대 등이 있다.**



교수·학습 자료

● **부벽준**

**산수화에서 산이나 바위를 그릴 때 축필을 사용하여 도끼로 깎 나무의 표면처럼 나타내는 방법.** 붓을 기울인 상태로 붓의 끝은 획의 바깥쪽을, 붓의 배는 안쪽을 지나도록 하여 먹이 묻는 면을 넓게 하여 끌어당겨 그린다. 이를 통해 수직으로 부서진 단층의 효과를 낸다. 붓자국의 크기에 따라 소부벽이나 대부벽으로 나눈다. 북송 말에 시작되었으며 남성적이고 힘찬 느낌을 준다. 이사훈, 이당, 마원, 하규 등과 절파 화가들이 잘 썼고, 조선에서는 이인문이 많이 사용하였다.

● **한국화의 분류(소재에 따라)**

- 산수화: 산과 강 등 자연을 소재로 한 그림
- 인물화: 인물을 소재로 한 그림
- 영모화 조화: 새와 짐승, 꽃 등을 소재로 하여 그린 그림
- 문인화·사군자: 직업적인 화가가 아닌 사대부 선비 계층의 사람들이 취미나 여가로 그린 그림. 화가의 내면세계나 생각을 표현한 간결하면서도 품격이 높은 문인풍의 그림을 가리키기도 함.
- **민화: 일반 서민들에게 사랑받았던 그림으로 생활 공간을 장식하거나 민속적인 관습으로 그려졌던 그림이다. 미술 수업을 받지 않은 무명 화가나 떠돌이 화가가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 양식과 관습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여 반복적이고 형식적임.**

● **한국화의 분류(기법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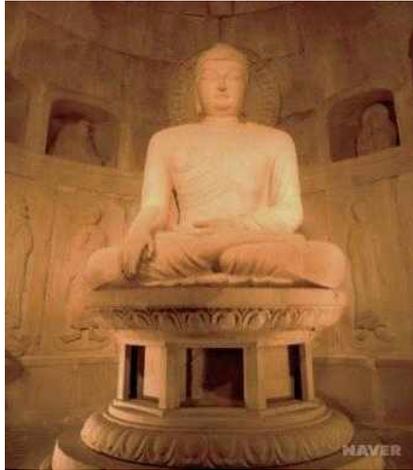
- **수묵화:** 화선지에 채색을 하지 않고 먹과 물을 재료로 하여 그 농담의 변화에 따라 모든 대상의 형태와 색을 표현하는 그림
- **수묵담채화:** 먹색의 농담 효과를 중심으로 표현하면서 엷은 채색을 더한 그림. 먹의 농담을 조절하여 표현한 후 채색을 하거나 채색을 먼저 한 후 먹선을 그려 표현함.
- **채색화:** 먹색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주로 색을 진하게 사용하여 표현하는 그림.

● **한국화의 조건**

- 화선지, 비단, 회벽, 먹, 한국화 물감 등 재료와 용구가 동양에서 사용해 온 것
- 한국화적인 소재와 기법을 이용한 것
- 원근법, 명암이 적용되지 않고 배경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나 **선과 여백, 기운의 표현**에 중심을 둔 것
- 은유적이고 생각을 주로 표현하였으며 암시적이고 정적인 느낌이 있어 한국적 정서가 표현된 것



교수·학습 자료



(1)



(2)

(1) <석굴암 본존불>(화강석/통일 신라 시대)

석굴암 본존불인 석가여래좌상(釋迦如來坐像)이다. 높이 약 3.4미터의 거대한 불상이다. 연꽃무늬 좌대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 모습을 화강석으로 조각하였는데 기법이 아주 정교하며 장중한 기운이 넘치는 세계 석굴의 걸작이다. 옷의 주름이 매우 생생하여 전체적으로 생명력이 느껴진다. 가늘게 뜯은 눈을 통해 깨달음의 깊이가 느껴지며, 얇은 미소를 띤 입술, 풍만한 얼굴을 통해 근엄함과 자비로움을 느끼게 한다. 오른손을 무릎에 걸친 채 검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항마촉지인을 하였고, 왼손은 선정인을 하고 있다. 석가모니가 큰 깨달음을 얻은 모습을 표현했기에 성도상이라고도 한다.

(2) 백남준(대한민국→미국), <TV 부처>(미디어 설치/2002)

- 작품의 재료: 부처 조각상, TV 모니터, 폐쇄회로 카메라, 컬러, 무성
- 제작 방법: 가변 설치
- 백남준이 불상이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TV 부처>라는 제목으로 다양하게 만든 것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부처가 폐쇄회로 카메라에 실시간으로 찍힌 자신의 모습을 TV 화면 속에서 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설치 작품이다. 종교적인 구도자이며 동양적 지혜의 상징인 부처가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대중매체인 TV를 본다는 점, 혹은 화면 속 자신에게 빠져든 모습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화면 속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찰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1974년 퀸미술관에서 진행된 퍼포먼스에서는 백남준이 직접 법의를 걸치고 부처가 되어 TV 앞에 앉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관객이 부처가 바라보는 TV 화면을 보기 위해 고개를 내민 순간 자신이 그 화면 속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닫혀 있지 않은 전자 환경'이 만들어진다.



교사 발문 및 학생 예상 답변

내용요소 - 다양한 주제 / 소재와 주제 / 상상과 관찰 / 발상 방법 / 표현 계획 / 조형 요소 / 조형 원리 / 표현 재료와 용구 / 표현 방법 / 제작 발표

- <석굴암 본존불>과 백남준의 <TV 부처>에서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작품의 소재,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 표현 재료, 표현 방법, 주제**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소재 면에서 <석굴암 본존불>은 부처만 있지만, <TV 부처>는 부처와 TV가 소재인 것이 다릅니다.”  
 “조형 요소 면에서 <석굴암 본존불>은 재료의 색이 밝고, <TV 부처>는 색이 어둡습니다. <석굴암 본존불>은 좌대 위에 부처가 있어 세로 형태로 느껴지고, <TV 부처>는 방석 위에 앉은 부처가 TV를 마주 보고 있어, 가로 형태로 느껴집니다.”  
 “조형 원리 면에서 <석굴암 본존불>은 비례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데 반해, <TV 부처>는 반복이 느껴집니다.”  
 “표현 재료 면에서 <석굴암 본존불>은 화강암으로 만들었고, <TV 부처>는 TV와 불상으로 제작되었는데, 불상의 재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표현 방법 면에서 <석굴암 본존불>은 화강암을 조각하여 만든 것이고, <TV 부처>는 TV와 불상을 활용하여 설치한 작품입니다.”  
 “주제 면에서 <석굴암 본존불>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모습을 표현하여 종교적인 면을 강조한 데 반해, <TV 부처>는 부처가 TV를 통해 자신을 보고 있는 모습을 통해 나르시시즘과 함께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합니다.”

조형 요소	점	위치만을 지니고 있는 조형의 기본 단위	선	점이 연속되어 이루는 기본 조형 요소
	면	선이 여러 개 겹쳐 모여서 이루는 표면	색	빛의 파장에 대한 눈의 반응
	형	윤곽에 의해 보이는 사물의 모양	명암	빛에 의해 드러나는 밝고 어두운 정도
	원근	사물이 멀고 가깝게 느껴지는 것	공간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 범위
조형 원리	질감	손이나 눈으로 느껴지는 표면의 느낌	양감	손으로 만지는 듯한 부피와 무게의 느낌, 덩어리감
	통일	색, 형태, 재료 등이 통합되어 하나로 완성된 상태	변화	통일된 규칙을 따르지 않고 차이를 나타내는 상태
	대비	반대되는 요소들이 서로 대립되는 것	강조	특정 부분을 두드러지게 표현하여 강해지는 것
	동세	표현 대상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움동	시각적으로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점증	비례	전체와 부분, 또는 부분들 사이의 크기 관계	균형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느낌
	점증	요소들이 점차적으로 변하면서 되풀이되는 것	조화	두 개 이상의 조형 요소들이 만들어 내는 어울림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과 현대 미술 비교하기

서술 평가 항목

- 김시의 <동자견려도>와 권기수의 <Listen without prejudice-green>을 감상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김시의 <동자견려도>	권기수의 <Listen without prejudice-green>
작품		
	김시(조선), <동자견려도> (비단에 채색/조선 시대)	권기수(대한민국), <Listen without prejudice-green> (캔버스에 아크릴/2010)
소재	나무, 당나귀, 사람, 시냇물, 절벽 등	나무, 꽃, 동물, 사람, 비 등
표현 재료	비단, 물감, 먹	캔버스, 아크릴 물감
표현 방법	그림	그림
색	검정색, 하양색, 갈색, 연보라색 등	검정색, 하양색, 취람색, 빨강색, 보라색 등
묘사 방법	색이 단순하고 사실적이다.	형태를 단순화하여 그렸다.
공통점	자연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렸다.	
차이점	여백의 유무, 색의 종류, 작가, 시대, 크기	



작품 정보: 김홍도 <하화청정>

작품의 특징: <하화청정>은 연꽃과 고추잠자리라는 뜻으로 연꽃 위에서 잠자리가 짝짓기를 시도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다. 꽃, 잠자리, 연잎 등을 종이에 물감으로 색을 칠하여 표현하였다. 연잎과 줄기에서 울동감을 느낄 수 있다.



작품 정보: 김종학 <녹음방초>

작품의 특징: <녹음방초>는 캔버스에 유화물감으로 색을 칠하여 그린 그림이다. 설악산의 푸른 숲속에 피어난 들꽃과 풀 등을 그렸다. 유화 물감으로 진하게 칠하여 여백 없이 표현하였다. 녹색 풀 사이에 다양한 색상의 꽃을 그려 색의 아름다움이 강조된다.

비교 감상문 쓰기

-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하여 비교 감상문을 써 봅시다.

<하화청정>과 <녹음방초>를 보고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먼저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꽃이 있고, 풀과 곤충을 그렸다. 두 작품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작품이다. 그러나 두 작품은 만든 사람이 다르고 꽃의 종류가 다르다. 또한 두 작품의 재료가 다르며 <하화청정>은 여백이 있지만 <녹음방초>는 여백이 없다는 것도 다르다.

토우 감상 학습지

- 토우를 감상하고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봅시다.



<인형을 붙인 굽다리 접시>(훈/삼국 시대 신라)

- 작품에 표현된 것은 무엇입니까?  
활을 쓰는 사람, 사람, 멧돼지, 개
- 작품의 표현 재료는 무엇입니까?  
흙
- 작품이 제작된 시대는 언제입니까?  
신라 시대 또는 삼국 시대 신라
- 제시된 작품의 토우 장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써 봅시다.  
활을 이용하여 개와 함께 멧돼지를 사냥하였다.
- 작품은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장품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라 사람들의 생각을 써 봅시다.  
죽은 사람도 산 사람과 같이 활동한다고 생각하였다. 저승에서 사냥을 잘해서 잘 살기를 바라고 있다.

교수·학습 자료



(1)

(2)

- (1) <토우>(훈/통일 신라 시대)
- (2) <토우 장식 장경호>(훈/삼국 시대 신라)

- 토우란 흙으로 만든 인형으로 어떤 형태나 동물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토우는 장난감이나 애완용으로 사용되거나 주술적 의미, 무덤에 넣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흙뿐만 아니라 동물의 뼈나 뿔, 나무 또는 짚이나 풀로 만들어 지기도 했으나, 주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우라고 부른다.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30호 무덤에서 출토된 토우 장식 장경호는 높이 34cm, 구연부 지름 22.4cm이다. 밑이 둥글고 입 부분(구연부)은 밖으로 약간 벌어진 채 서 있으며, 4개의 선을 목 부분에 튀어나오게 표현하여 돌렸다.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5개의 선을 그렸고, 그 선 사이에 동심원을 새겼으며 개구리·새·거북이·사람 등의 토우를 장식했다. 토우의 몸통 부분은 2등분하였는데, 윗부분은 목 부분과 같이 한 번에 5개의 선을 그렸고, 그 사이에 동심원을 그렸다. 어깨와 목이 만나는 곳에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과 토끼, 뱀 및 배부른 임신부가 가야금을 타는 모습의 토우를 만들어 붙였다.

이러한 토우들은 생산, 풍요, 벽사(귀신을 물리침)의 의미를 갖고 있다. 토우들은 소박하면서도 예술성이 뛰어나며, 당시의 신앙과 풍부한 감정 표현을 드러낸다.

- 토우: 흙으로 만든 사람이나 동물의 모형이다. 종교적·주술적 대상물, 부장품, 장난감 등으로 사용되었다. 유럽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넓은 지역에서 만들어졌는데, 동부 유럽의 후기 구석기 시대 유적에서 나온 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교수·학습 자료



(1)



(2)

(1) <주검 앞에서 슬퍼하는 여인 모양 토우>(훈/삼국 시대 신라)

슬픔을 억누르며 비탄에 잠겨 있는 죽음과 애도의 광경이 실감나게 표현된 토우이다. 슬퍼하는 사람의 가슴이 뚜렷이 표현되어 여인임을 알 수 있고, 작은 천 조각으로 죽은 사람의 얼굴을 가렸는데, 주검이 작은 것으로 보아 어린아이로 추측된다. 그 곁에 고개를 숙인 여인은 어머니일 것이라고 짐작된다.

(2) <집 모양 토기>(훈/통일 신라 시대)

집 모양 장골 용기라고도 한다. 통일 신라 시대에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으로 장례를 주로 치르게 된다. 화장을 한 뒤 뼈를 모아 그릇에 담아 땅에 묻는 화장 묘가 나타나는데 이때 뼈를 담은 그릇을 뼈항아리라고 한다. 초기에 사용되었던 뼈항아리는 일상생활에 쓰던 토기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여기에 약간의 장식을 가미한 토기였다. 이 집 모양 뼈 용기는 기와집으로 암수 기와를 가지런히 이은 팔작지붕을 갖고 있다. 바깥벽에는 도장으로 찍어서 구성된 육각형, 꽃 모양 등 다양한 무늬들이 표현되어 있으며, 나무 한 그루를 가는 침선으로 그려, 이 집에 딸린 정원을 표현하였다. 문짝과 안 단지가 없다. 따라서 단지의 존재 여부 또한 알 수가 없다.



교사 발문 및 학생 예상 답변

● 이 작품을 본 느낌을 말해 봅시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괴롭거나 슬픈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라 시대의 집과 조선 시대의 기와집이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 이 작품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검 앞에서 슬퍼하는 여인입니다.”  
 “얼굴에 수건을 덮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어린이로 보입니다. 그 옆에는 사람이 있는데, 가슴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여인으로 보입니다. 어린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여인이니 어머니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주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느낌입니다.”  
 “기와집입니다.”

● 이 작품의 표현 재료 및 표현 방법은 무엇일까요?

“흙을 이용하여 주무르거나 판을 만들어 형태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 이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형 원리(통일, 비례, 반복, 울동, 대비, 대칭, 강조, 점, 변화, 조화 등)는 무엇일까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동세가 느껴집니다.”  
 “기와집의 모양이 대칭적이고, 지붕의 기와가 반복적입니다.”

● 주검 앞에서 슬퍼하는 여인과 기와집을 표현한 토우에서 찾을 수 있는 신라인들의 생활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라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슬퍼하였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지었던 집의 형태가 조선 시대에 많이 지어진 기와집의 형태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기와집 형태로 집을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 자료



(1)



(2)



(3)

(1) 이중섭(대한민국), <물고기와 노는 세 아이>(종이에 연필, 유채/1952~1953)

자연 친화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묘사된 아이들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중섭은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천진한 아이들의 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

(2) 샤갈(러시아), <곡예사>(캔버스에 유채/1930)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인물과 샤갈 특유의 색채 대비로 동화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드러나는 작품이다.

(3) 밀레(프랑스), <이삭 줍는 사람들>(캔버스에 유채/1857)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농부들의 일상을 그려 낸 작품이다. **사실적인 명암과 원근 표현으로 원경과 인물 사이의 공간이 느껴진다.**

- 다섯 가지 단서를 하나씩 보여 주겠습니다. 단서가 지시하는 작품을 알아낸 사람은 이유와 함께 어떤 작품인지 말해 봅시다. **첫 번째 단서는 '유화 물감으로 그려졌다.'입니다.**  
"세 작품 모두 해당됩니다. 모두 '유채'라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 모두 '유채'라는 말을 찾았나요? 작품의 재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작품과 옆에 쓰여 있는 작가와 제목 옆에 쓰여 있어요."
- 이렇게 미술 작품과 함께 제시되는 작품 정보에서 작품의 재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품 정보를 통해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작품의 제목과 작품을 그린 작가입니다."  
"작가의 국적을 알 수 있어요."  
"작품이 그려진 연도가 나와 있어요."

- 표현 재료는 눈으로 보고 알아차리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작품 정보를 활용합니다. **두 번째 단서는 '배경에 비해 인물의 색이 진하여 강조되는 느낌이 있다.'입니다.** 어떤 작품을 가리킬까요?  
"<곡예사>입니다. 배경의 색에 비해 인물의 옷에 화려한 색이 사용되어서 강조되고 있어요."  
"<이삭 줍는 사람들>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배경에 비해 인물 쪽에 훨씬 어두운 색이 사용되었어요."  
"<물고기와 노는 아이>인 것 같아요. 배경은 거의 흰색인데 비해, 아이들의 발가벗은 몸이 진한 색으로 칠해졌어요."
- 다음 단서는 **'명암이나 형태가 사실적이기보다는 단순하다.'입니다.**  
"<물고기와 노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자세나 표정이 거의 비슷하고, 실제와 조금 다르게 그려졌어요. 명암도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자세하진 않아요."  
"<곡예사>도 사실적이진 않아요. 거의 사진처럼 그려진 <이삭 줍는 사람들>에 비하면 단순한 형태인 것 같아요."
- 그렇다면 네 번째, **'선은 여러 겹으로 거칠게 그려져 있다.'라는 단서를 보고 해당되는 작품을 더욱 좁혀 볼까요?**
- "<물고기와 노는 세 아이>가 확실해요.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연필이 쓰였기 때문에 선이 뚜렷한 여러 겹으로 그려졌어요. 다른 작품에서는 거친 느낌이 나지 않아요."  
"<곡예사>도 작품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물감으로 선을 거칠게 그렸을지도 몰라요."
- **마지막 단서는 '작품의 주제는 노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함과 이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입니다.** 단서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단 하나의 작품을 찾아볼까요?  
"<물고기와 노는 세 아이>입니다. 아이들을 그린 유일한 작품이고, 아이들의 표정에서 즐거움이 느껴져요."

비평문 속 미술 용어 찾기

이중섭(대한민국), <물고기와 노는 세 아이>(종이에 연필, 유채/1952~1953)

이 작품은 1952년부터 1953년에 그려진 이중섭 작가의 <물고기와 노는 세 아이>라는 작품으로, **종이 위에 연필과 유화 물감**으로 그려졌다. 작품을 처음 보면, 서로 비슷한 모습을 한 세 아이가 평온한 표정으로 자기 몸집만 한 물고기를 잡아 올리고 있는 것이 보인다.

작품의 **선은** 여러 겹으로 거칠게 그려져 있고, **명암이나 형태**가 사실적이기보다는 단순하다. 아이들의 몸, 물고기, 배경을 칠한 **색**을 살펴보면 배경에 비해 인물의 **색**이 진하여 강조되는 느낌이 있다. 오른쪽 두 아이의 자세는 비슷하게 통일되었지만, 왼쪽 아이는 두 손으로 낚싯대를 올리는 자세로 변화를 주었다. 이로 인해 마치 아이들이 진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동세**도 느껴진다.

작가가 작품의 **소재**로 놓고 있는 아이들을 선택하여 표정과 자세를 재미있게 그린 것을 보면, 아마도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아끼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작품을 그렸을 것이다. 그래서 작품의 **주제**는 '노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함과 이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을 감상하고 있으면 나도 더 어렸을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작품이다.



(1)



(2)



(3)



(4)



(5)



(6)



(7)



교수·학습 자료

- 비평문의 요소는 **펠드만의 비평 단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각 단계에 대한 의미와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기술:**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보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출발 단계이다. 작품 속에서 볼 수 있는 사실들을 나열하며,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의 인상 그대로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 **분석:** 어떤 조형 요소들이 어떤 조형 원리로 조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앞선 단계에서 확인한 요소들에 대하여 조형적 특징을 서술한다.**
  - **해석:**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나 의미를 탐구해 보는 단계이다. 이미 기성화된 의미를 안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작품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한다.
  - **판단(평가):** 작품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결론적인 평가를 내리는 단계이다. 앞서 밟았던 단계를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작품의 가치에 대하여 서술한다.

(1) 이암(조선), <어미 개와 강아지>(종이에 엮은 색/16세기)

어미 개와 강아지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먹을 찍어서 한 붓에 그리는 방법으로 그려졌다

(2) 김홍도(조선), <씨름>(종이에 엮은 색/18세기)

당시 서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원형 구도**의 중심에 위치한 인물은 금세 넘어갈 듯이 **동세**가 느껴지며, 배경을 생략하여 인물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딱딱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선**에서는 생명력이 느껴진다.

(3) 박수근(대한민국), <아기 보는 소녀>(하드보드에 유채/1963)

아기를 업은 소녀를 단순한 형태로 묘사한 작품이다. 물감을 쌓듯이 채색하여 그림이 갈라지는 듯한 독특한 **질감**이 느껴진다.

(4) 김덕기(대한민국), <행복한 마을로 가는 길 1>(캔버스에 아크릴/2013)

동화적인 표현으로 마을과 가족 등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주제 의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나무나 들판에 반복하여 점을 찍는 등 풍부한 색채 표현이 눈에 띈다.

(5) 백남준(대한민국→미국), <다다익선>(1,003개의 텔레비전 수상기/1988)

1000여 개의 텔레비전을 원형 탑 모양으로 높이 쌓은 작품이다. 기존에 작품의 재료로 잘 사용하지 않던 **텔레비전을 활용하여 작품의 형태와 영상 내용이 함께 어우러지는 효과를 꾀하였다.**

테크놀로지 아트의 특징

- 과학의 발달에 따른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시도한다.
- 컴퓨터, 비디오 등 전자 매체를 표현 도구로 적극 활용한다.
- 빛, 움직임, 소리와 같은 공감각적 요소가 부각된다.
- 영상 미술과 실제 공간에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전시하는 **설치 미술의 형식**을 포괄한다.
- **감상자와 작품이 상호 소통하는 인터랙티브 아트의 형식을 띠는 경우가 많다**

(6) 칼더(미국), <계단식 꽃>(판금, 철사에 채색/1996)

철사와 금속으로 제작한 모빌 작품이다. 비슷한 형태가 반복되지만 하단으로 갈수록 점증적으로 크기가 작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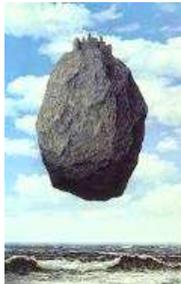
**키네틱아트는 작품 그 자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을 넣은 예술 작품을 말한다. 작품 속에 움직임을 표현하거나 옵아트와 같이 시각적 변화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키네틱 아트는 움직임을 조각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임으로써 정적인 사물이었던 조각에 동적인 움직임과 생명을 부여하였다.

(7) 올덴버그(스웨덴→미국), <술가락 다리와 체리>(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에 채색/1985~1988)

일상적인 소재를 커다랗게 확대하여 공원에 배치함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유쾌함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밝은 술가락 위의 붉은 체리가 강조되며 시선을 끈다.



(8)



(9)



(10)



(11)



(12)



(13)



(14)

(8) 드가(프랑스), <열네 살의 어린 무용수>(밀랍을 청동으로 주조, 직물/1865~1881)

무대를 준비하는 발레리나를 실제 발레용 치마, 비단 신발, 리본 등을 입혀 사실적으로 나타낸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뒤로 쏠린 듯한 모습이나 **균형**이 잡혀 조화로운 느낌을 준다.

(9) 마그리트(벨기에), <피레네의 성>(캔버스에 유채/1959)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독특한 느낌을 주는 **초현실주의** 작품이다. 마그리트의 작품 속 아이디어들은 현재의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 영향을 끼쳤다.

**어떤 사물을 본래의 위치에서 떼어내 다른 맥락이나 상황에 놓아 충격 효과를 내는 것 - 데페이즈망(dépaysement) 기법**

(10) 피카소(스페인), <꿈>(캔버스에 유채/1932)

잠에 빠져 꿈을 꾸는 여인을 원색적인 색채로 담아낸 작품이다. 이국적인 벽지 무늬와 부드러운 **형태**를 띠는 여인의 몸이 조화롭다.

(11) 미로(스페인), <무제>(캔버스에 유채/1978)

**두껍고 진한 선과 원색 위주의 색**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미로는 마치 아이와 같은 순수한 세계를 표현하고자 **단순한 형태와 원색**으로 작품을 구성하였다.

(12) 달리(스페인→미국), <기억의 지속>(캔버스에 유채/1931)

일상 속 흔한 물건인 시계를 마치 녹는 듯한 형상으로 표현한 **초현실주의** 작품이다. 배경은 사실적인 원근 표현으로 넓은 들뜬 공간을 실제로 볼 수 있을 듯한 느낌이 든다.

(13) 릴랑가(탄자니아), <행복한 가족>(캔버스에 유채, 에나멜/2015)

마을 풍경 속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 낸 작품이다. 배경의 나무가 서로 비슷한 위치에 배치된 반면 집과 인물이 남은 공간을 비대칭적으로 채우고 있어 비대칭 속의 균형이 느껴진다.

(14) 생팔(프랑스), <사랑의 새>(폴리에스테르 합성수지에 채색/2000)

거대한 새와 이에 매달린 사람의 모습이 유쾌하게 묘사된 입체 작품이다. **평화와 사랑에 대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하여 **색채와 양감**을 풍부하게 표현하였다.